

김군자(金君子) 피해자 할머니

강간 사건 22년 가해자 13년.
2023년 12월 142-45

1. 김군자의 증언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남, 여동생이 둘, 아버지는 양반, 어머니는 26세로 연하, 학교에는 못갔다.

모든 형제들도 큰 맥이 차남을 양자했다. 10세때 아버지 사망.

1942년 3월 17세때 군속과 같은 조선인 남성을 따라 중국 동북부 훈춘에 있는 킹카쿠 위안소에 감. 그후 고카시 위안소로 이동. 마을은 없고 군부대만 있었다.

일본이름 가네모토 키미코(金本君子)

(증언집 III에서)

2. 김군자가 입은 피해에 책임이 있을 수 있는 군대와 판명된 사실.

증언에 의하면 1942년 3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양부의 집에서 17세 때 군복을 입은 조선 남성에 의해 연행됨.

기차를 탔다. 8명의 소녀와 함께 전투모를 쓴 조선인 남성에게 연행됨.

기차안에는 군인들이 있었음.

훈춘의 킹카쿠 위안소

1) 증언: 군인과 소녀들과 트럭으로 훈춘 도착. 소녀들은 킹카쿠 위안소로 옛여관과 같은 건물. 이미 위안소에는 9명의 소녀 있었음. 이제 통합 17명. 주인부부+조선인 남성. 2층 건물 각층에 방이 9개. 이곳에 일년반쯤.

평일에는 병사들이 오지 않음. 밤에는 장교가 옴. 토요일 오후부터 병사들 오다. 일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교가 병사를 인솔해서 옴. 많을때에는 40명쯤.

✓ 맨처음 강간한 군인은 장교, 저항했더니 폭행을 가해 오른쪽 고막이 파멸되어 지금도 오른쪽은 들리지 않는다.

매주 금요일에는 군인 트럭을 타고 검진소로 가서 군의에게 성병검사를 받았다.

콘돔(악구)를 하지 않은 군인에게 옮겨서 매독 감염. 606호 주사 맞음. 유산경험 있음.

상대는 육군조장(曹長)

대금 받은 일 없음. 주인은 없음. 주인은 김군자를 “키미코” “9번”이라 부름. 조선사람끼리 있을 때는 조선말을 함

2) 1942년 3월 당시의 관동군은 군용쇠신의 시기

A. 1941년 관북연 직후의 주요전투부대(관동군(2):24,25)

관동군 직할 사단 5 (10,14,28,29,51) 훈춘주둔대 9국경수비대

7독립수비대(제 10사단지휘하) 10박격대대야중 2, 10, 18연대 목단궁중연(丹工重蓮) 전차(戰車) 7, 8, 23연대 그 외 약간

B. 1942년 3월 16일 “관동군 작전준비요강”을 상주 재가 받은 관동군에게 훈령

이에 대해 관동군은 중장의 지시와 예산에 의해 장기적 목표밑에 작전준비

이에 대해 6월 7일 육군성부, 전황의 추이에 따라 병비의 정돈과 대북방 준비를

목표로 하는 “군용의 쇠신”을 계획하고 국군 국용쇠신 요강을 육상(陸相)과 참모총장

열립상주(列立上奏), 대남방을 대폭정리하고 만주와 내지의 병비를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골자.

제 1방면군 사령부신설(목단강) 山下奉文중장(관동군(2):106-107,110)

제 2군(연길)신설(사령관, 上月良夫 중장, 전제19사단장, 나중에 조선군사령관)

골간병단은 예하상주하는 제 71사단을 신설(춘추주둔대를 모태로 해서 5월신편)

사단장, 遠山登中장

제 9국경수비대1 (五家子-훈춘 18키로) (관동군(2) 169,170) 有事時에는 북조선 나남에 있는 제 19사단과 합해 빠라바시를 향해 급습할 임무를 줌

관동군 병원(兵員)수 65만명, 전차 675, 장갑차 155, 비행기 750

1942년 8월부터 시작한 가라후카나후섬 공방전에서 미군에 패한 후 전국은 일본군 敗勢에 들어감

1942년 9월 관동군에서 항공부대와 일부 지상부대를 뽑아 전용하기 시작.

“관동군의 지위가 점점 입장으로 변질”(中山234, 235)

1943년 10월 26일 제 2군 사령부를 뽑아내 남동과 호주북쪽으로 전출(관동군 (2)248, 249)

3) 훈춘의 위안소

西野留美子(니시노후미조)가 마련한 훈춘의 지도 있음.

陶土元씨의 증언: 훈춘 구시가에는 일본인 여성의 위안소 자리가 있다.(만주인들은 조선여성을 일본여성과 구별하지 못하지 않았나 한다. 윤정옥)

이름은 高樓, 山水樓, 大福樓, 天島樓, 山月樓.(NO.10 1992년 25쪽)

4) 훈춘의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증언

- 島本重三(시마모토)“ 1943년부터 21년간 제 733부대공병 일등병으로서 만주국간도성 훈춘에 주둔. 병사도 외출시 2명이상이 함께 나갔음. 혼자서는 지정된 장소외에 가는 것은 금지. 허가된 장소는 이곳에 하나밖에 없는 영화관과 위안소. 위안소를 “빠一屋(야)”라고 불렀고 조선여자를 “조생빠一”라 불렀다. 병사전용의 빠一야는 훈춘에 5곳. 1곳에 약 10명. 조선여자들이 “헤이타이상, 남가가 되세요“하고 길가에서 불렀다. 개중에는 아주 어린 소녀도 있었음. 병사 위문하는 일을 하면 큰돈을 번다고 해서 멀리 왔는데 속았다고 했음. 일요일은 난리였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차례 병사가 문을 두들겼다. 전병같이 얇은 요에는 기분 나쁜 되가 묻어 있었다. 여자들은 생리 때도 쉬지 못했다. 개중에는 자살하는 여자도 있었다.

- 손학운(孫學雲)의 증언: 옛날에는 일반 가옥은 단층. 위안소만이 2층. 여성들은 조선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 도사원(陶士元)의 증언: 훈춘천(春川)을 따라 조선인의 집이 위안소. 20, 30채 있었다.

5) 군과 위안소의 관계에 관한 증언: 포병사령부서기관. 증언당시 73세

八面通의 주둔사령부, 兵위문부에서 일을 한 전병사의 증언.

“위안소를 개설하는데에는 ‘위안소 취업신청서류’를 사령부에 낸다. ”위안부“ 취업시에도 사령관의 허가 필요. 본인의 사진, 이름과 경력, 조선의 본적, 나이. 거의 17, 18세. 매월 「月報」를 부대에 제출. 부대는 일년에 한번 사령부에 제출. 「月報」에는 ”위안부“의 한달동안의 성적, 급료의 명세서등, 아래칸에는 포主와 ”위안부“의 확인하는 도장 날인. 군인이 가도 좋은 위안소는 군이 지정한 조선인, 일본인이 경영하는 위안

소뿐. 「중군위안부110番」 52, 53쪽.

- 6) 고찰“ 따라서 김군자 피해자가 ”위안부“를 강요됐을 1942년 5월경 훈춘에는 관동군 (사령관 梅建美治郎대장) 직할의 훈춘주둔대가 주둔해 있었음. 「軍容制新」(6월 6일 戡可)에 따라 지상병력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관동군 사령부가 충사령부로 개칭.

제 1방면군 사령부 목단강에 신설 사령관 山下奉文 중장

제 2방면군 사령부 연길에 신설 사령관 上月良夫 중장

제 71사단(軍會甲 제 34號로 편성, 5월 16일 大命 제 630號로 편입(관동군(2)) 사단장 遠山登 중장.

김군자 피해자가 훈춘에서 있었다는 킹카쿠 위안소는 찾지 못함.

3. 고카시(五家子일것임)위안소

- 1) 증언: 1년 반 후(1943년 연말이나 1944년 연초에) 군인들이 전전(前戰)에 나가서 트럭으로 고카시로 이동. 개인집에 7명이 들어감. 고카시에는 마을이 없고, 벌판. 성병 검사는 트럭을 타고 다른 부대로. 군인은 토요일에만 오고, 외출 못함. 일년 반 좀 못 되게 체류.

- 2) 자꾸 관동군에서 사단이 남방으로 진출되고 고카시에는 제 127사단이 신설됨. 1945년 10월 26일 제 2군사령부가 진출됨. 남동과 호주 북쪽으로.(관동군(2) 248, 249) 1944년 7월 18일 관동군 충사령관 梅建美治郎대장이 참모총장 취임.

후임 관동군 충사령관에 山田乙三대장

3월말까지 개전시 만주에 주둔해 있던 13개 사단이 전부 없어짐. 그 동안 관동군은 재만부대의 개편과 진출된 사단잔부를 기간으로 14사단을 편성. 이중 3사단은 조선 남부로 진출됨. 나아가 5월에는 중국전선에서 4개 사단, 조선에서 1개 사단 편입. 다음에 뿌리채 동원됨.

- 3) 관동군 城부대에 소속했던 전 병사의 위안소에 관한 증언:

1937년에서 1944년까지 소련과 접하는 국경지대를 전전함. 城部隊란 토—지카를 만드는 부대. 나는 위안소도 지었다. 방 하나가 다다미 3장자리 판자집. 요금은1원 50전. 한 여자가 하루에 50명 상대. 많은 병사가 줄 서 있었다. 한 사람이 2, 3분. 일요일에 너무 많이 몰려서 다른 요일로 각 부대가 의논해서 할당. 조선인 여자는 군인 빨래하는 여자 모집한다고 해서 응했다는 것. 속았다고 함. 관동군에 물품을 대는 상인이 “위안부”를 알선한 모양. 국경지대는 몹시 춥다.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죽은 “위안부”를 늑대가 먹은 일이다.(중군위안부 110番 39, 40쪽)

- 4) 퇴전시 김군자 증언

증언: 해방된 지 몰랐다. 남성이 맘대로 하라고 했다. 한 푼 없이 다른 “위안부”와 위안소를 나와서 백두산, 豆頭江(두만강?)을 건너 조선의 회령에서 혼자 거의 거지가 되어 철원에 왔다.

7.11.